

# 알래스카 헌터봉 북벽 등반기

권 순 재 <검약산악회>

지난 5월 13일(1997) 한국을 떠나 알래스카에 온지 벌써 보름 가까이 지나갔다. 앵커리지 국제공항에 도착할 때부터 비가

오고 바람이 심하게 불더니 계속 날이 좋지 않다. 식량구입에 추가장비 구입, 입산신고 등 정신없이 이삼일을 보내고 결국 맥킨리의 데날리를 등반하기로 했던 팀들까지 데날리를 포기하고 전대원이 헌터봉



북벽과 서릉을 등반하기로 레인저들에게 이야기하고 베이스캠프에 들어선 것이 일주일 전인 5월15일이었다. 그후로도 날이 지금까지 좋지 않다.

아침에 눈, 오후에 잠시 좋다가 다시 바람과 눈, 이렇게 또 몇 날을 보내고 비로소 오늘(5월23일), 앞으로 닥새가 좋은 날이 될거라는 현지 레인저인 애니의 말에 최승모 대원과 나는 저녁을 먹고 장비를 챙겨 북벽 아래의 전진캠프로 이동해 대기하기로 하고 만일 날씨가 좋으면 아침에 최정희대원, 김용주대원, 최광선대원 등이 올라와 등반을 하기로 했다. 24일 아침에 마침 날씨가 좋다. 하늘은 구름 한점없이 깨끗하고 일주일동안 벽주위를 맴돌듯 훑날리던 눈가루들 조차 휴식을 취한 듯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며칠전 전진캠프를 설치할 때 같이 올라왔던 미국 동부에서 왔다는 미국인 두명도 바빠 움직이며 장비나 식량등을 준비하기에 여념이 없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사람과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사람, 모두 키가 180cm가 훨씬 웃돌아 보였고 등반경력도 꽤 있어 보인다. 이 사람들은 장비나 식량을 모두 합쳐서 50L 배낭에 둘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는 3명이 등반을 하지만 60L 배낭 3개와 2인용 포터릿까지 되어 그 무게와 부피의 차이가 꽤 많이 나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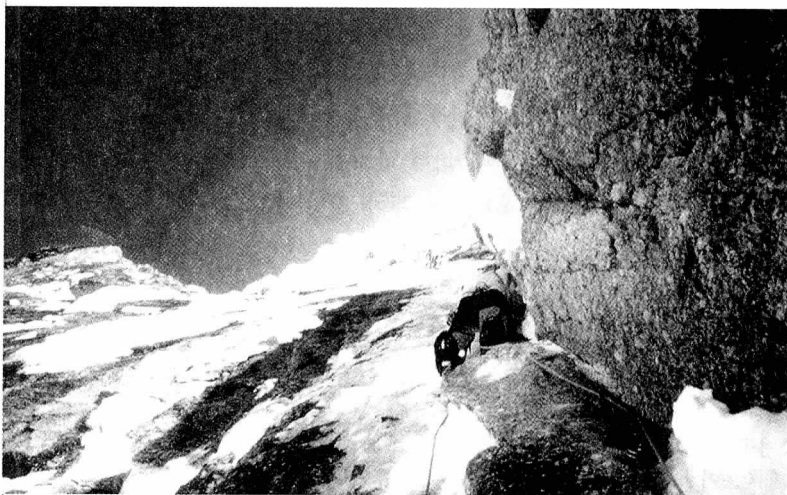
등반루트는 1981년 머그스텀프와 폴이 초등한 문플라워 버트레스로 알라스카 그레이트 6급 빙벽과 버트레스로 알라스카 그레이트 6급 빙벽과 믹스등반이 최고 경사 95도가 된다. 결코 만만한 루트가 아니다. 하지만 제일 쉬워 보이는 루트다.

대원들이 올라올 쯤 미국인 두명이 벽을 향해 출발하고 우리

는 증식을 준비하며 좀더 무게를 줄이기 위해 고심을 해야 했다. 최정희 대원과 최승모대원 그리고 나를 포함해 모두 세명이 등반을 하기로 하고 북벽을 향하여 출발할 때가 정오였다. 먼저 출발한 미국인들은 문 플라워 버트레스의 시작 지점과는 다른 WPDO루트의 2피치지점에서 선등자가 등반을 하고 있고 우리도 문플라워 버트레스 시작 지점에서 좌측으로 500m 정도를 이동해 등반을 시작했다. 베르그슈르트를 출발점으로 잡고 60도쯤 되어 보이는 빙벽을 두피치 오르니 바위지대가 나왔다. 이곳은 95년 헌터봉 케네디 로우 루트 등반때 최승모대원과 정찰 등반을 해 본 곳이라 지형들이 눈에 익었다. 하지만 95년 보다는 시즌이 이른 탓인지 베르그 슈르트가 많이 벌어져 있었고 넘어서는데 애를 먹었다. 그 당시 하강할 때 설치한 하켄에 노란 슬링이 반감게 나를 맞이하는 듯 하다. 확보물을 확인하고 추가로 후렌드 하나를 더 설치한 후에 최정희 대원이 등강기를 이용해 올라오고 나는 홀링을 했다. 그런데 이 짐 끌어올리는게 장난이 아니다. 가벼워 보이는 포타렛지부터 올리는 데도 경사가 심하질 않아 그런지 여간해서 잘 올라오질 않는다. 목직한 배낭을 끌어 올리는데 최정희대원과 함께 줄을 당겨도 잘 올라오질 않는다. 등반보다 홀링이 더 힘들다.

두꺼워 보이는 부분에 스크류 하나를 우려 넣는데 5cm 남짓 들어가더니 더 이상은 안들어 간다. 할 수 없이 거기다 통과하고 등반을 시작하니 우측으로 크랙이다. 적당한 곳에 주먹만한 후렌드를 넣으니 크랙 벽면이 얼음이라 잘 설치가 된건지 믿음이 가질 않는다. 피켈도 살짝 찍고 아이젠도 되도록 살면서 찍어가며 등반을 하는데 아래에서는 20m 남짓 되 보이던 피치가 30m 가 넘어서야 좀 경사가 죽고 단단한 빙벽이 나온다. 이곳은 문플

라워 루트와 만나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지 누군가가 바위틈에도 2호짜리 스톱퍼 너트를 설치하고 하강한 것이 있어 그곳에 확보하고 피켈과 바일로 보조확보물을 더 설치한 후 최정희대원이 올라 오도록 줄을 고정시키고 그 사이에 홀링을 했다. 시간을 보니 오후 10시가 넘어서고 있었다. 오늘은 이곳에서 등반을 마쳐야 할 것 같다. 최승모 대원이 올라오고 나서 포타렛지를 설치하고 물을 끓이고 더 설치한 후 줄을 고정시켰다. 어제의 피로가 덜 풀렸는지 최정희대원과 최승모대원이 올라오는 모습이 매우 힘들어 보인다.



나 역시도 홀링을 하는 것이 어제보다 더 힘이 든다. 어깨가 다 빠근하니 말이다.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바람까지 심하게 불어댄다. 북벽에 있던 눈들이 바람이 불때마다 북벽을 타고 폭포처럼 쏟아져 내린다. 그렇지 않아도 등반속도가 느린데 더욱 느

려지게 생겼다. 오후가 되면서 하늘에 어느새 구름도 보이기 시작한다. 일단 한피치 더올라 보기로 하고 좌측으로 약간 기운 빙벽을 따라 10여미터 오르니 60도정도에 설사면이 나타난다. 30여미터 정도 되어 보여 설사면 끝나는 곳까지 가서 텃트와 하켄으로 고정하고 피치를 끝내니 이곳은 바람이 더 심하게 불어댄다. 체력이 많이 소모되어 그런지 팔에 쥐가 온다. 최정희대원이 올라오더니 많이 힘들어 한다.

이제는 더 이상 등반을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스스로 가하는 고문같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주저없이 등반을 포기하고 하강하기로 한 후 전진캠프에 김용주대원에게 무전으로 알리니 잘 생각했다고 하며 조심해서 내려오라고 한다. 우리는 이 북벽을 5일간 등반하고 이틀간 하강하려고 했지만 이틀간 등반한 결과를 보면 이 상태로는 7일을 등반해도 북벽을 끝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의 짐이 너무 무거웠고 이런 벽에서의 등반 뿐만아니라 비박방법, 홀링방법 등이 전혀 훈련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천금과 같은 시간을 등반을 위해 쓰지 못하고 비박텐트 설치와 음식준비 등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한 듯 하다. 앞으로 언제 또 이런 벽에 등반을 할지 모르지만 그동안 우리의 관심밖에 있던 믹스클라이밍 기술과 벽등반에서의 비박과 홀링 등에 대한 기술 연마후에 등반에 나서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한 것이 이번 헌터 북벽 등반에서 얻은 교훈이라 생각한다. 언제 누가 이 벽을 등반하게 될지 모르지만 부디 우리의 실패를 계기로 더욱 부단한 훈련과 준비로 우리보다는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 ▲